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구조와 특징

—인문 계열 전공 글쓰기 상담을 중심으로—

조희정 · 이현주

<차 례>

- I. 서론
- II.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
- III.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미시 구조
- IV.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특징
- 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대학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된 상담 대화의 구조와 그 특징을 서술하는 데 목적인 둔다. 주지하다시피 대학 글쓰기 교육은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양의 학술적 축적을 이룩한 분야이다.¹⁾ 이는 대학 교육 내에서 표현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사고와 표현’으로 대표되는 강좌가 설치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 제1저자 : 조희정(한성대, imnot@naver.com), 제2저자 : 이현주(한성대, e-guswn@daum.net)

1) 이는 한국작문학회의 학회지인 『작문연구』 수록 논의의 상당수가 대학 글쓰기라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 글쓰기 교육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사고와 표현 학회’가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대학 글쓰기 관련 연구물들은 더욱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적으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측면 중 하나는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feedback) 단계이다. 이는 대학 글쓰기 교육이 학습자의 실제적인 글쓰기 수행 능력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학습자의 글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오윤희, 2008 ; 이명실, 2008 ; 주민재, 2008). 학습자가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은 자기 평가, 글쓰기 전문 강사와의 면대면 상담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혹은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을 활용(조희정 외, 2008 : 103~108)하는 등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중 글쓰기 전문 강사와의 면대면 상담 형태는 많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글쓰기 피드백의 양상이다. 따라서 글쓰기 전문가와 학습자 사이의 면대면 상담은 앞으로도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많이 활용될 피드백의 한 양상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글쓰기의 피드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학습자의 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된 경우가 많다. 상담 전과 후 상담 대상이 되었던 글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인 셈이다. 상담을 통한 변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텍스트 그 자체의 변화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와의 대면 접촉을 특징으로 하는 ‘상담’ 피드백에 대한 연구로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면대면 상담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면대면 상담은 주로 대화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학 글쓰기 상담의 실제적인 대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로부터 대학 글쓰기 상담의 구조를 파악하여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특성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글쓰기 상담 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실제 자료는 2009년 1학기 한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²⁾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한성대학교의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전공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

2) 자세한 내용은 조희정(2008) 참조

고자 기획되었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 글쓰기 강화와는 조금 구분되는, 각 대학별 전공 글쓰기 강화에 대학 글쓰기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고안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문 계열 글쓰기 상담 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의 1학년 전공과목 ‘현대 서양의 이해’ 수강생들³⁾의 글쓰기 상담 대화를 자료로 수집하였다.⁴⁾ 이러한 조건은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상담 대화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짓는다.

첫째,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글쓰기 상담 대화의 학습자들은 전공 영역의 대학 글쓰기를 처음으로 접해 보는 1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리포트의 형식과 작성 과정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⁵⁾

둘째, 담당 교수가 부여한 리포트 주제는 ‘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으로 학습자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를 정리하되, 최종적으로 주제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요구된 ‘자료 정리 능력’과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능력’ 등의 복합 능력은 글쓰기 상담의 주요 검토 항목이 되었다.⁶⁾

이상의 조건에 따라 진행된 글쓰기 상담 대화를 전사하여, 행동기능(act function), 순서(turn), 단위화제(transaction)의 위계(유동엽, 1997 : 17)에 따라 글쓰기 상담 대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대화 층위는 일반적인 대화 분석에서 활용되는 기준이지만, 본 논문이 주목하는 자료는 ‘글쓰기’ 상담 대화라는 점에서 ‘글쓰기’라는 속성이 각 대화 층위의 성격을 보다

3) 상담에 임한 학습자는 98명이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글쓰기 단계와 상담 내용을 고려하여 15명의 상담 과정을 대표 사례로 활용하였다.

4) 상담은 2009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상담 시간은 1인당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그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는 학습자들이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법과 오타자, 단락 구성을 상담 내용에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6) 이를 위해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인용법과 참고문헌 작성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리포트의 성격이 주장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과 인용한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규정해준다.

기능적인 최소 단위로서 ‘행동기능(act function)’은 하나의 문장 이상이나 이하로 구성될 수 있다.⁷⁾ 본 논문은 글쓰기의 이론적인 영역과 문제 해결 과정의 인지적인 영역, 글쓰기의 이론적인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행동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순서(turn)’는 한 사람이 발화를 시작하여 다음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의 단위이다. 대체로 상담원과 학습자의 발화 순서는 교대로 일어나므로 이를 차례대로 기술하여 행동 기능을 분석하였다.

‘단위화제(transaction)’는 상담 대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일정한 단위로 나눈 것으로, 상담원과 학습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화제가 단위이다. 예를 들면, 상담 글의 제목 정하기, 목차 수정하기, 전개 방식 설정하기 등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단위가 된다. 각 단위화제는 진단과 처방을 위한 행동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이제 이상의 기준에 따라 II장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대화 전체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대학에서의 ‘글쓰기’라는 문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대화의 미시 구조⁸⁾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분석을 토대로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가 지닌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7) 기존의 대화 연구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분석하여 질문, 답변, 제안, 평가, 확인 등으로 행동 기능을 제시하였다(유동엽, 1997 ; 박용익, 2001 ; 박정진, 2006 등).

8)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는 상대적 구조 개념이다. 만약 단위화제 하나로 구성된 대화를 미시 구조로 설정한다면 하나 이상의 단위화제를 지닌 경우 거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상담 대화 전체를 거시 구조로, ‘쓰기 과제 수행’이라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 대화를 미시 구조로 설정하기로 한다.

II.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구조를 파악하기에 앞서 대학 글쓰기 상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해 보자.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을 준비하는 ‘계획 단계’와 상담원과 학습자가 대면하게 되는 ‘실행 단계’ 그리고 상담 과정을 평가하는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담 전 과정인 계획 단계는 상담을 하기 전의 준비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담의 신청과 접수,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위한 준비 과정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상담원은 학생이 상담을 신청한 글을 확인하고, 예비 진단을 시행한다. 본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실행 단계에서 상담원과 학습자의 면대면 상담이 진행되고 난 후, 상담 후 과정인 마무리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는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단계 중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상담의 실행 단계에 초점을 두어,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를 살펴본다.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는 일반적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과제의 목적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도입→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종료’의 기본 틀은 대체로 유지된다. ‘도입과 종료’는 상담이 시작되어 끝날 때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진단과 처방’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표 1〉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

진행 과정	세부 구조	
	학습자	상담원
도입	시작 인사	시작 인사
	↓	
	자기소개	
	↓	
		(편안한 상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제 도입)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	준비 과정 설명	
	↓	
	개요를 통해 자신의 글 설명	
	↓	
		(수사적 상황 파악을 위한) 질문
	↓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	문제 원인 분석 ① 맥락 파악 ② 내용 생성 ③ 내용 조직 ④ 내용 표현	
	↑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	개선 방안 모색 ① 맥락 파악 ② 내용 생성 ③ 내용 조직 ④ 내용 표현	
	↓	
종료	(상담 이후 학습자에게 부과된 과제) 답변	(상담 이후를 대비한) 질문
	↓	
	추가 질의·응답	
	↓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1. 도입

도입 단계에서는 상담원과 학습자가 서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여 관계를 맺는다. 이때, 상담원은 학습자의 불안감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기 위해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평가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입 단계에서 상담원은 학습자의 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학습자와 공유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담원과 학습자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거나 수직적으로 형성되면 학습자가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상담원이 일방적으로 학습자의 글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상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의 도입에 해당하는 [사례 1]에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담원이 학습자의 근황을 질문하는 등 상담을 위한 관계 설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⁹⁾

[사례 1] 도입 과정

- (01) 상담원 : 안녕하세요. 상담원 ○○○입니다. <인사>
- (02) 학습자 : 안녕하세요. 1학년 ○○○입니다. <인사>
- (03) 상담원 : 축제 때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황 질문>
- (04) 학습자 : 아니요. 재미있게 못 놀았어요. 일만 했어요. <내용 답변>
- (05) 상담원 : 무슨 일을 했는데요? <내용 구체화 질문>
- (06) 학습자 : 주점에서 일했어요. <내용 답변>
- (07) 상담원 : 뭐 맡았어요? <내용 구체화 질문>
- (08) 학습자 : 서빙이요. <내용 답변>

9) Hindelang(1981 ; 박정진(2006 : 25)에서 채인웅)에서는 질문의 유형을 크게 문제 중심적 질문과 관계 중심적 질문으로 구분하여, 관계 중심적 질문의 하위 유형으로 ‘관심 질문’, ‘근황 질문’, ‘감시 질문’을 제시하였다.

2.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

학습자가 지닌 글쓰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처방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의 글쓰기 상담은 학습자가 미리 준비해 온 한 편의 글을 기본 자료로 삼아 진행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을 위해서는 학습자와 상담원이 함께 학습자가 준비해 온 글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상담원에게 글쓰기의 전 과정과, 목차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글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사실상 상담을 준비하는 상담원은 학습자의 글을 미리 본 상태이므로 이 단계에서 상담원은 학습자의 글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처해 있는 수사적 상황(rhetoric situation)¹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습자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기에 상담원이 질문을 통해 이 점을 진단해야 한다.

[사례 2]는 학습자가 글쓰기의 수사적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이다. 상담원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글을 목차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하고(01), 이어서 글의 갈래가 무엇인지(05), 끝으로 과제 준비 과정을 질문하였다(07). 그 결과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은 배제한 채 참고문헌을 요약하는 과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08).

[사례 2]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 과정

(01) 상담원 : 먼저 과제를 개요식으로 설명해 볼래요? <개요 설명 요청>

(02) 학습자 : 개요. <머뭇거림>

(03) 상담원 : 목차 차례대로 준비한 것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재요청>

(04) 학습자 :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의의? 그걸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걸 얘기했구요. 그 다음에는 주의에서 들었는데 원인인데,

10) 수사적 상황이란 글쓰기의 목표, 독자의 기대, 글쓰기의 제약 등을 가리킨다. 수사적 상황에 대한 보충적 설명은 조희정(2007 ; 233~237) 참조.

원인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으라고 해서 세르비아 사건이란 그 원인인 발칸반도에 대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칸반도랑 마지막에 또 다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제 생각이나 아니면 발생한 영향력, 이런 것? <개요 설명>

(05) 상담원 : 그럼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인가요? 주장하는 글인가요? <글의 갈래 질문>

(06) 학습자 : 저는 설명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글의 갈래 답변>

(07) 상담원 : 저번에 10페이지로 작성한 과제 있잖아요. 참고문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요. 이걸 3페이지잖아요. 그럼 10페이지를 3페이지로 요약한 거예요? <준비 과정 질문>

(08) 학습자 : 10페이지를 그냥 요약했어요. <확인 답변>

(09) 상담원 :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학생 의견을 써야 해요. <과제 성격 진술>

3.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

상담원과 학습자가 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후,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상담원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파악한 후에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을 진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글쓰기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개선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진단한다.

[사례 3]에서는 글의 제목을 살펴 학습자의 제목 짓기 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상담원은 글의 제목이 지나치게 큰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01). 학습자가 다루려는 주제를 구체화하도록 유도하였다(09). 이를 통해 ‘발칸 전쟁’과 ‘세르비아 사건’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 학습자의 의도라는 점을 확인한 후(10), 글의 제목이 지닌 문제를 진단하였다(11).

[사례 3]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 과정

(01) 상담원 : 1차 대전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제목이 너무 크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는 평화’라고 하면 뭘 하려고 하는지 드러나요? <문제

파악 유도 질문>

(02) 학습자 : 음... <머뭇거림>

(03) 상담원 : 영화나 소설 제목 같지 않아요? <문제제기 질문>

(04) 학습자 : 네. <수용>

(05) 상담원 : 나의 의견이 들어가서 주장하는 글이 되어야하지요. 그럼 내가 뭘 다루고 싶은지 읽는 사람이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일단 학생은 뭘 다루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이것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사적 상황 설명>

(06) 학습자 : 그럼 발칸전쟁과 세르비아 사건... <글의 소재 진술>

(07) 상담원 : 자,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큰 주제 확인 질문> 여기에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발칸전쟁과 세르비아 사건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주제 구체화 유도 질문>

(08) 학습자 : 관계가 있어요. 발칸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져서 세르비아 사건이 일어나요. <내용 답변>

(09) 상담원 : 그럼, 발칸 전쟁과 세르비아 사건의 연계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주제 구체화 유도 질문>

(10) 학습자 : 연결이 되서 결국 이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내용 답변>

(11) 상담원 : 그 내용이 제목에 드러나지 않지요... <문제점 진단>

4.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

상담원과 학습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진단하고 서로 공유하였으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 상담원은 첫째, 학습자의 문제가 글쓰기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과제의 맥락을 파악하는 단계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인지, 내용을 구조화하는 단계인지, 표현을 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처방은 달라진다.

둘째, 상담원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상담원의 조언을 중심으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상담원에게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례 4]는 제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상황이다. 상담원은 학습자에게 주장하려는 내용이 드러나게 제목을 수정하도록 제안하였다(01). 그런데 학습자가 제목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에(02, 04) 상담원은 글에서 제목의 역할(03), 내용의 키워드(05)와, 가제목의 중요성을 강조(06)하며 제목 수정하기를 위한 처방적 대화를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부제목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07).

[사례 4]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 과정

- (01) 상담원 : 주장하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을 수정해야겠네요? <해결 방안 확인 질문>
- (02) 학습자 :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고 싶어요 <주제 진술>
- (03) 상담원 : 말하고 싶은 점이 제목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학생이 참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화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영화 내용은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영화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이지요. 이외에 참고문헌을 정리한 과제에서도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근거 제시 방법 설명>
- (04) 학습자 : 10페이지는 1차 세계대전 기원을 했거든요. 이 글은 선행 과제와 관련이 없어요. <문제제기 진술>
- (05) 상담원 : 그럼 영화를 근거로 삼겠다고 하면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소감문 내지는 영화 소개글이요.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제목을 어떻게 해볼까? 중심이 되는 미국이 드러나야겠네요. 키워드 미국, 제1차 세계대전이 드러나야겠네요? <제목 설정 유도 질문>
- (06) 상담원 :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원인을 제목으로 할 수 있겠고, 한 번 제목을 정했다고 끝까지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제목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제목 설정의 필요성 강조>

(07) 학습자 : 부제목을 ‘영화 바탈리언을 중심으로’라고 써도 되지요?
<해결 방안 확인 질문>

(08) 상담원 : 그럴 수도 있지요. <긍정 답변>

5. 종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이 드러나고,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상담이 마무리된다. 글쓰기는 학습자의 직접적인 수행을 요청하는 활동인 만큼,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상담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진단과 처방 과정이 다시 반복될 수 있고,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2차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5]는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상담 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다. 상담 이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상담원의 질문(01)에 학습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여(02), 상담원은 학습자가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였다(03). 다음으로 상담원은 학습자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부여하여(06),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07), 상담 목표가 원활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면 상담은 종료된다. 이처럼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수행 결과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례 5] 종료 과정

(01) 상담원 :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학생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지요? <해결 방향 확인 질문>

(02) 학습자 : 우선 기준... <머뭇거림>

(03) 상담원 : 그걸 어디서 공부해 보라고 했지요? <구체화 질문>

- (04) 학습자 : 참고문헌 정리한 것 10쪽 안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해결 방향 답변>
- (05) 상담원 :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내가 알아야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전개 방식 설정의 필요성 강조>
- (06) 상담원 :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어요? <마무리 유도 질문>
- (07) 학습자 : 제 의견이나 생각을, 제 의견이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전개 방식 설정 질문>
- (08) 상담원 : 내가 이런 기준으로 나눠 보겠다 하면 그게 생각이지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자료를 참고해요. 항상 글을 쓸 때 공부를 먼저 하고, 근거 자료를 찾으세요 <전개 방식 설정 방법 설명>. 어려워요? <이해 확인 질문>
- (09) 학습자 :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해 정도 진술>
- (10) 상담원 : 공부를 해보고, 세부 목차를 나누세요. 서론, 본론, 결론 분량을 고려하고... <요약정리 진술>

Ⅲ.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미시 구조

글쓰기 상담의 거시 구조에서 도입과 종료 단계를 제외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진단과 처방의 연속¹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진단과 처방 단계는 글쓰기 상담의 중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쓰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련의 상황을 하나의 화제로 파악하여, 개별 화제에 따른 미시 구조를 Ⅲ장에서 살피고자 한다.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각 단계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① 수사적 상황 파악, ② 내용 생성, ③ 내용 조직, ④ 표현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각 단계는 개별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글쓰기의 활동에 따라 다시 하위의 개별 화제로 구분된다. 이제 각 개별 화제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마련하는 대화의 미시 구조를 살펴본다.

11)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도 ‘진단’의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1. 수사적 상황 파악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글쓰기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과정의 첫 단계에서 자신의 글쓰기를 둘러싼 수사적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중등학교까지의 글쓰기 교육을 고려할 때, 대학 1학년 학습자들이 글쓰기의 목표, 독자의 기대, 글의 갈래, 글쓰기의 제약을 포함한 수사적 상황을 학습한 적이 없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대학교 이전 단계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수사적 상황 파악을 낮설어 했으며, 설령 지식적 차원에서 수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실제 글쓰기 활동에 적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사례 6]은 학습자가 과제의 목적과 갈래를 잘못 파악하여¹²⁾ 참고 자료를 요약하는 데 그친 예이다. 상담원은 상담 준비 단계인 예비 진단 과정에서 학습자가 글의 갈래를 잘못 파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 글의 갈래를 질문⁽⁰¹⁾하여 학습자가 과제를 설명하는 글로 인식⁽⁰²⁾하고 있음을 진단한 후, 그것을 수정해 주었다⁽⁰³⁾.

이번 글쓰기 상담 과정에서는 [사례 6]처럼 자신이 처한 수사적 상황 중, 특히 글의 갈래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글의 갈래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주제 선정부터 다시 새롭게 수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갈래 파악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례 6] 글의 갈래 파악

(01) 상담원 : 이 과제는 주장하는 글쓰기일까요? 설명하는 글쓰기일까요?

<글의 갈래 질문>

(02) 학습자 : 설명하는 글쓰기요. <글의 갈래 답변>

12) 부과된 과제는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많은 학습자들이 설명하는 글을 상담 글로 제출하였다.

- (03) 상담원 : 설명하는 글로 생각을 했구나. 이 과제 전에 10페이지로 정리한 참고문헌을 정리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과제를 하는 것이지요? <과제 확인 질문> 기존의 과제를 요약하거나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의 의견을 써야 해요. 그럼 주장이 되어야 해요. 설명도 들어가고, 주장도 들어가고, <글의 갈래 설명> 그런데 이 글은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제기 진술>
- (04) 학습자 : 아,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문제 확인 답변>

[사례 7]은 수사적 상황 중 독자에 대한 고려에 초점을 둔 대화이다. 대학 글쓰기에서 학습자들의 독자는 대부분 담당 과목의 교수이다. [사례 7]의 학습자는 글쓰기에서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독자인 담당 교수를 고려한 글쓰기의 특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01). 이에 상담원은 담당 교수가 과제를 부여할 때,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거나 혹은 담당 교수의 입장에서 과제에 대해 접근하라는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처방적 발언을 하고 있다(02). 독자에 대한 고려는 모든 글쓰기로 확대될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인 만큼 상담원은 이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고 있다(04).

[사례 7] 글의 독자 파악

- (01) 학습자 :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었는데, 만약 교수님한테 쓴다고 하면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해요? <독자 파악 방법 질문>
- (02) 상담원 :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그 과제를 왜 내주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1차 세계대전에 대해 내 생각을 알리고 하나 아니면 자료를 정리하게 하려는 것인가, 전 단계 과제인 참고문헌을 정리하라고 한 것은 책을 읽으라는 목적이잖아요. 이 과제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참고문헌을 정리하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겠지요 <독자 파악 방법 설명>.
- (03) 학습자 :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움 진술>
- (04) 상담원 : 쉽지 않지만 질문도 할 수 있지요. 참고문헌 정리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저의 주장이 들어가야 하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글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향

상 생각해요. <맥락 파악의 필요성 강조>

[사례 8]은 글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예이다. 상담원은 먼저 글의 목적(01)과 글의 갈래를 질문하였다(03). 그리고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질문으로 유도하여(03, 05),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07). 다음으로 학습자가 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고(09),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10).

[사례 8] 글의 갈래와 목적 파악

- (01) 상담원 :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글의 목적 질문>
- (02) 학습자 : 경제 대공황을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시기별로 보고 싶어요. <내용 답변>
- (03) 상담원 : 이 글은 나의 의견을 쓰는 과제일까요? 기존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과제일까요? <글의 갈래 질문> 서론, 본론, 결론의 목차가 있어야 해요. 목차에 따라서 학생이 갖고 있는 의견을 써야 하지요.
- (04) 학습자 : 아 의견을 쓰는 거예요? <글의 갈래 확인>
- (05) 상담원 : 그냥 주장만 하면 될까요? <갈래의 성격 질문>
- (06) 학습자 :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해요. <갈래의 성격 답변>
- (07) 상담원 : 근거가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해요. 기존의 참고문헌을 이용할 수 있지요. 10장을 이미 정리했잖아요.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정리하고, 그 근거를 10장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근거 제시 설명> 이해했어요? <이해 확인 질문>
- (08) 학습자 : 네. <수용>
- (09) 상담원 : 말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했지요? 경제공황을 보고 싶다고 했지요. 여기에서 학생의 의견을 무엇일까요? <글의 주제 유도 질문>
- (10) 학습자 :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문제 파악 진술>

2. 내용 생성

글쓰기 과제가 놓인 수사적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글에 담을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 글쓰기 상담에 응한 학습자들 중 다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경우 상담원은 학습자의 머릿속 생각들을 표현해 내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학습자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하여 키워드를 찾아 개별 키워드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사례 9]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못하여 글에서 다룰 내용을 생성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예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다루고 싶은 주제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04). 주제를 묻는 상담원의 질문이 이어지자(05), 학습자는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갔다(06). 이에 상담원은 학습자에게 주제를 선정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09). 이후 학습자가 내용을 생성하는 데 의존적인 반응을 보여(10, 12),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절차적으로 안내하였다(13).

이런 상황에 놓인 학습자는 다루어야 할 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제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습자의 글쓰기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례 9] 주제 구체화하기

- (01) 상담원 : 주제는 없어요? <주제 파악 유도 질문>
- (02) 학습자 : 책 보고 그냥 솜 전투에 대해서만 썼어요. 한 번은 읽어 봤어요. <글의 소재 진술>
- (03) 상담원 :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일이 주제를 정해야지요. 솜 전투를 다루고 싶다고 했으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제를 정해야지요. 솜 전투, 구체적으로 뭘 다루고 싶은 걸까요? <주제 구체화 유도 질문>

- (04) 학습자: 영국이 싸웠을 때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희생이 된 전투에 대해서. <글의 내용 진술>
- (05) 상담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의견은? 희생을 많이 하고, 전투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은 뭘까? <주제 구체화 유도 질문>
- (06) 학습자: 영국의 군사력은 증가... 맞는 내용인가? <글의 내용 진술>
- (07) 상담원: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확실히 알고 와야 할텐데요. <문제 제기 진술>
- (08) 학습자: 음... 잘 모르겠는데. <문제 파악 진술>
- (09) 상담원: 그럼 먼저 학생이 주제를 정해야 돼요. 숨 전투에 대해서 설명은 일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써야 해요. 그 근거는 10페이지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안 설명>
- (10) 학습자: 그러면 전투가 실패했는데, 그 과정을 쓰면 되지요? <해결 방안 확인 질문>
- (11) 상담원: 그 과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배경이 되겠지요?
- (12) 학습자: 그거 쓰고, 군사력 증가하는 거랑 그렇게 쓰면 되지요? <해결 방안 확인 질문>
- (13) 상담원: 학생이 어떤 흐름으로 할지 아직 안 드러나 있어요. 그걸 하려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숙지해야 돼요. 주제를 잡고, 주제를 잡았으면 목차를 쓰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결 방안 설명>

[사례 10]은 주제와 관련하여 다룰 내용을 선정하고,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예이다. 학습자는 ‘독일의 통일, 비스마르크 외교, 삼국동맹의 성립, 재보장조약, 삼국협상의 성립, 유럽의 화약고,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나열하여 글을 전개했다. 이 중에서 다루고 싶은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도록 제안하고(02), 주제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질문을 반복하였다(04, 06).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의 특징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10, 12, 14, 16). 이처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미숙한 학습자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질문을 던져 주면 내용을 체계적으로 생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례 10] 내용 생성하기

- (01) 학습자 : 제 생각을 쓰는데요. 주제를 잡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나열을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이 중에서 외교정책이면 외교정책에 대해서만... <내용선정의 문제제기>
- (02) 상담원 : 1차 세계대전과 외교정책이라고 하면, 관심 있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해보지요. 관심 있는 것이 외교예요? 주제로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 보세요. <해결방안 제안>
- (03) 학습자 : 외교 관계요. <내용 답변>
- (04) 상담원 : 제목을 쓰면서... 제목이 1차 세계대전과 외교관계라고 써 보세요. 1차 세계대전과 외교관계라고 했을 때 이 키워드를 보세요. 키워드는 몇 개예요? 두 개네요. 외교관계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내용 구체화 질문>
- (05) 학습자 : 유럽 국가들 <내용 답변>
- (06) 상담원 : 유럽 국가? 어디랑 어디요? <내용 구체화 질문>
- (07) 학습자 : 1차 세계대전은 한 나라라고 말하기... <내용 답변>
- (08) 상담원 : 외교라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내용 구체화 유도>
- (09) 학습자 : 많이 얹혀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내용 답변>
- (10) 상담원 :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
- (11) 학습자 : 러시아와 독일 <내용 답변>
- (12) 상담원 : 또? 글에서 찾아보고 얘기해요. 프랑스와 러시아의 관계는 아닌가? <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
- (13) 학습자 : 프랑스와 러시아는 우호 관계거든요.
- (14) 상담원 : 하나는 우호 관계고, 하나는 대립 관계예요? 우호 관계 있어요? <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
- (15) 학습자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내용 답변>
- (16) 상담원 : 외교 관계를 크게 묶어 볼 수 있는 게 대립 관계와 우호 관계지요. 대립 관계인 나라들은 어디예요? <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
- (17) 학습자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내용 답변>

[사례 11]은 근거 자료가 빈약하여 자료를 보완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먼저 상담원이 학습자가 다루고자 하는 바를 반복적인 질문(01,

03)을 통해 구체화하고, 내용들 사이의 관계와 그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05). 그 후 학습자가 다룰 내용과 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07, 09), 학습자는 조사한 자료의 양적인 한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보완·분석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였다(10).

이처럼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빈약하면 내용을 조직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내용을 조직하거나 문장을 표현하는 단계의 상담을 원하더라도 상담원은 학습자가 개선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례 11] 자료 보완하기

- (01) 상담원 : 민족주의가 보고 싶다고 그랬지요? 여기 써 보세요. 그럼 소재는 가지고 왔네요. 민족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다루고 싶은 것인가요? <주제 파악 유도 질문>
- (02) 학습자 : 그 둘의 갈등을 다뤄 보고 싶어요. <내용 답변>
- (03) 상담원 : 그 둘이 뭐지요? <주제 구체화 유도 질문>
- (04) 학습자 : 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내용 답변>
- (05) 상담원 : 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이 둘이 대립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학생은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제 구체화 유도 질문>
- (06) 학습자 : 왜 인종을 나누고 차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뉘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지를 보고 싶어요 <내용 답변>
- (07) 상담원 : 만약에 두 갈등을 제목으로 드러나게 하고 싶다면 부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갈등이라고 쓸 수 있겠지요. 이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본문은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요? <내용 생성 유도 질문>
- (08) 학습자 : 둘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배경 <내용 답변>
- (09) 상담원 : 그걸 이제 본문에서 알려줘야겠지요? 목차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하겠지요. 전개 방식을 결정해야 하겠지요. 전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전개 방식은 될까요? <전개 방식 유도 질문>
- (10) 학습자 : 그런데, 이렇게 쓰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찾아야 할까요? <문제 파악 확인 질문>

- (11) 상담원 : 전 단계 과제에서 한 주제를 잡아 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보고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그리고 쓰기 전에 먼저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겠지요? <문제해결방향 정리 진술>
- (12) 학습자 : 네. <수용>

3. 내용 조직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글을 조직하면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내용 조직과 관련한 상담 내용은 생성한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에 맞게 유기적으로 전개하는 방법, 목차를 전개하는 방법,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 등이 대화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

[사례 12]는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는 대화이다. 먼저 상담원은 학습자에게 서론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묻고, 본론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는지 질문하였다(01). 다음으로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결론에서 정리하였는지 질문을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05). 학습자가 결론 전개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에(08), 결론에서 본론의 전개 내용을 고려하여 요약·정리하도록 조언하였다(11).

[사례 12] 글의 전개 방식

- (01) 상담원 : 서론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본론에서 했어요? 서론에서 뭘 하겠다고 했지요? 1차 세계 대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서론에서 본론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서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시간 순서인가? 각각의 사건인가? <전개 방식 설정 유도 질문>
- (02) 학습자 :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본론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못 쓴 것 같아요. <문제 파악 답변>
- (03) 상담원 : 본론은 학생이 생각한 거예요? 참고한 거예요?

- (04) 학습자 : 생각한 것도 있고, 참고한 것도 있고,
 (05) 상담원 : 그럼, 본론에서 쓴 내용이 결론에 정리되어 있나요? <전개 내용 확인 유도 질문>
 (06) 학습자 : 3C, 발칸 반도 썼고 그 다음 뭐지? 삼국동맹, 아. 삼국협상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 파악 답변>
 (07) 상담원 : 이 글을 쓴 사람도 찾기 힘들지요? 쓴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방향 유도 질문>
 (08) 학습자 : 내용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해결 방향 답변>
 (09) 상담원 : 일단 없는 것을 넣어야 하고,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전개 방식 구체화 유도 질문>
 (10) 학습자 : 순서대로? <해결 방안 확인 질문>
 (11) 상담원 : 결론에서 요약 정리를 할 때는 본론의 순서와 맞춰줘야 돼요. 유기적으로 본론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하지요. <해결 방향 제안>
 (12) 학습자 : 네. <수용>

[사례 13]은 학습자가 글의 목적에 맞게 목차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유도해 가는 과정이다. 목차¹³⁾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였다. 먼저 학습자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목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한 후⁽⁰¹⁾, 세부 목차 I, II, III장에서 다룬 내용들의 차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자^(07, 09, 11), 학습자는 결국 I장과 II장의 내용이 구분이 안 된다는 문제를 인식

13) [사례 12] 학습자의 목차(제목 : 독립의 쉼터 계획, 그것이 알고 싶다.)

I. 쉼터 계획의 등장배경과 정의

II. 쉼터 계획이 미친 영향

1. 삼국동맹의 입장에서
2. 삼국협상의 입장에서
3. 제1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

III. 쉼터 계획의 허와 실

1. 쉼터 계획이 간과한 몇 가지 사실
2. 쉼터 계획의 모순
3. ‘양패구상’의 계획
4. 몰트케가 수정한 쉼터 계획

IV. 내가 생각하는 쉼터 계획

하게 되었다(12).

[사례 13] 목차 수정하기

- (01) 상담원 : 학생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로 뭘 하고 싶다고 했지요? <내용 파악 유도 질문>
- (02) 학습자 : 등장배경과 정의요. <내용 답변>
- (03) 상담원 : 그 다음에? <내용 정교화 유도 질문>
- (04) 학습자 : 미친 영향 <내용 답변>
- (05) 상담원 : 어디에 미친 영향? <내용 정교화 유도 질문>
- (06) 학습자 : 1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 <내용 답변>
- (07) 상담원 : 그러면 이걸 보면, I 장하고 II 장하고 III 장은 어떻게 달라요? <세부 목차의 문제 유도 질문>
- (08) 학습자 : I 장은 삼국 동맹이란 게 독일하고 전쟁을 일으킨 세력의 입장에서 미친 영향을 보고, 두 번째는 영국이랑 프랑스 같이 전쟁을 참가는 했지만 이 국가들이 일으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 계획을 보고. <내용 답변>
- (09) 상담원 : I 장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II 장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기술하게 되겠네요. 그럼 III 장은 어떻게 다룰까요? <세부 목차의 문제 유도 질문>
- (10) 학습자 :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반에 미친 영향이요. <내용 답변>
- (11) 상담원 : 그럼 I, II 장하고는 들어갈 내용이 구분이 되나요? <세부 목차의 문제 유도 질문>
- (12) 학습자 :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 파악 답변>

[사례 14]는 학습자가 상담원에게 단락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을 한 사례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긴 글을 써 본 경험이 많지 않아 단락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 글쓰기에 익숙한 학습자들은 단락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한 문장을 한 단락으로 오해하거나 단락을 전혀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락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구분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02). 구체적으로 학습자

의 글을 예로 들어 한두 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04).

[사례 14] 단락 구성하기

- (01) 학습자: 글에 단락 나누는 거 가르쳐 주세요. <단락 구성 방법 요청>
- (02) 상담원: 한 단락은 하나의 중심생각을 다루고 있어야 해요. 단락은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는 거예요. 마침표 찍힌 것, 이게 문장이예요. 단락과 단락이 모이면 글이 되지요? 문장과 문장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단락과 단락도 잘 연결이 잘 되어야 해요.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눠 주어야 하느냐가 문제지요. <단락 구성 방법 설명> 한 단락이 한 문장은 아니예요. 이 글에서는 한 문장이 한 단락인 것도 있고, 다섯 줄 정도가 한 단락인 것도 있어요. <문제 제기 진술>
- (03) 학습자: 네.
- (04) 상담원: 여기를 보면, 만약에 1차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다고 했지요? ‘사라예보 사건을 들 수 있다’라고 했으면 단락을 이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사라예보 사건이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라고 여기서 화가 제가 전환되지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뭔가를 하겠지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부분을 한 단락으로 묶어 주면 되겠지요. <문제 해결 방안 제안>
- (05) 학습자: 네. <수용>

4. 내용 표현

글쓰기 상담 대화에서는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장이나 적절한 어휘 등을 표현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상담의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러한 상담 내용은 대체로 내용 생성과 조직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는 학습자와의 상담 대화에서 다루어진다. 내용 표현과 관련된 상담 대화의 하위 화제¹⁴⁾에는 서술 방식을 통

14) 내용 표현과 관련된 상담 내용들은 다른 단계들보다도 학습자들의 수정 글에 상담 내용이 반영되었느냐, 아니냐를 통해 상담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

일하는 방법, 문장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문장 부호와 어휘를 선택하는 방법, 띄어쓰기 등이 포함된다.

[사례 15]는 여러 개의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만 하는데 그쳐, ‘첫째, 둘째, 셋째’의 항목별로 기술하도록 조언하는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01).

[사례 15] 항목별로 기술하기

- (01) 상담원 : 결론에서 요약 정리를 할 때는 본론의 순서와 맞춰줘야 돼요. 유기적으로 본론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하지요. ~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첫째 쓰고, 둘째 쓰고, 셋째 하고 쓰면 어떨까? 이걸 한 단락씩 나눠 주거나 한두 문장이면 한 단락으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기술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드러나게. <해결 방안 제안>
- (02) 학습자 : 네. <수용>

[사례 16]은 내용이 모두 조직되어 있는 글의 문장 길이를 수정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습관적으로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내용을 쓰고, 심표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학습자가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인지하도록 글을 소리 내어 읽도록 지시하였다(01). 자신의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학습자는 스스로 독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긴 문장을 의미 단위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05). 긴 문장을 몇 개의 내용으로 나눈 뒤에 서술어를 수정하고, 문장 부호나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완성하도록 안내하였다(09, 11).

이처럼 내용을 표현할 때 습관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학습자가 상담 후에 의식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원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

안을 제안하는 데 그치면 학습자의 습관적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례 16] 문장 길이, 띄어쓰기 수정

- (01) 상담원 : 세부적으로 문장 표현을 봐야 해요. 이 부분을 읽어 보세요.
<문제 파악 유도 지시>
- (02) 학습자 : 당시의 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 환류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글 읽기 실습>
- (03) 상담원 : 여기도 문장이 너무 길지요. <문제 제기 진술>
- (04) 학습자 : 예, 너무 기네요. <문제 파악 진술>
- (05) 상담원 :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의미적으로 나눠 보세요.
당시의 채무관계를 살펴보면, ‘미국은’이라고 미국에 대해 나와 있네
요. 의미적으로 나눠 보세요. <문제 파악 유도 지시>
- (06) 학습자 : 되었는데 나뉘고, 기여함으로써 나뉘고, <문장 나누기 실
습>
- (07) 상담원 : 지금 습관적으로 길게 쓰고 있는 걸 느끼겠지요? 소리 내어
읽어 보니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시를 했지요. 부상
하게 되었다라고 일단 나눌 수가 있겠네요. 채권국 미국 자본의 대외
유출은 ‘서유럽’ 다음에 쉽표를 적절하게 이용해 주세요. <해결 방안
제안>
- (08) 학습자 : 쉽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방법 질문>
- (09) 상담원 : 쉽표는 의미적으로 문장 중간에 사용하여 나눠 주는 거예요.
독일의 부흥자본에 기여하였다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 연결해 주는
말은 ‘이로 인해’라고 써 주면 되겠네요? <이해 확인 질문>
- (10) 학습자 : 네. <수용>
- (11) 상담원 : 문장과 문장을 나눌 때 연결이 안 된다고 한꺼번에 쓰지 말
고 습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짧게 쓰기 힘들 테고, 먼저 쓴 다음에
나누고, 서술어로 고치고, 접속하는 표현들을 사용해 주세요. 대립적
인 관계, 원인 결과 ‘그러므로’ 까닭을 쓸 때 ‘왜냐하면’ 의미가 다
달라요. 구분해서 써주세요. <해결 방안 제안>

[사례 17]에서 학습자는 습관적으로¹⁵⁾ 문장의 마무리를 서술형이 아

15) [사례 17]의 학습자는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알고 싶다고 상담 전에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였고, 상담 내용이 수정 글에 모두 반영되었다.

닌 명사로 끝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쉼표가 쓰일 자리에 온점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리포트 글쓰기에서는 문장을 서술형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01), 실제 글에서 드러난 잘못된 사례를 짚어 주었다(02).

[사례 17] 서술형 문장 통일, 문장 부호 사용

- (01) 상담원 : 학생이 글을 쓸 때 습관이 알고 싶다고 했지요? 글을 쓸 때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한 문장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찍힌 것이 한 문장이겠지요. 공식적인 글일 때는 서술형으로 끝내는 게 좋아요. 세계대전.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버렸는데 광고 카피 같지 않아요? ‘~하자, ~이다,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끝나야 해요. 독일, 영국, 이런 것들은 쉼표를 쓰고, 뒤에도 그래요. 문장을 쓸 때 공식적으로 문어체답게 구어보다 문어에 가깝게 쓰세요. <해결 방안 제안>
- (02) 학습자 : 네. <수용>
- (03) 상담원 : 여기에서도 발칸 반도 오랫동안 발칸 반도 이렇게 끝나잖아
요. <문제 제기 진술>
- (04) 학습자 : 쉼표를 쓰면 되나요? <해결 방안 확인질문>
- (05) 상담원 : 문장으로 수정을 해줘야지요. 쉼표가 아니지요. 뒷문장과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사라예보 사건 이렇게 마침표. 문장으로 써주려면 지배하에 있었다가 되어야지요. 발칸반도는 ~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지요. <해결 방안 제안>
- (06) 학습자 : 아~ 네. <수용>

[사례 18]에서 학습자는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지시어 ‘그것’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01). 학습자는 본인이 지시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사례 18] 정확한 어휘 표현

- (01) 상담원 : 그리고 그것, 그것, 그것 결국 그것, 그것이 너무 많아요.
<문제 제기 진술> 사람들이 대화할 때 거시기, 거시기하면 사람들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잘 돼요? 특히나 글에서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면 바로 수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유도 질문>

(02) 학습자 : 없어요.

(03) 상담원 : 그럼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구조와 표현적인 측면에서 한 눈에 들어오게 단락을 나눠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단어 선택할 때. <해결 방안 제안>

IV.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특징

대학 글쓰기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상담원과 함께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글쓰기 상담 대화는 학습자가 겪은 글쓰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고¹⁶⁾, 글쓰기 과정을 절차적으로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글을 진행하는 데 도움¹⁷⁾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학 글쓰기 상담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쓰기 습관¹⁸⁾을 점검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상담원과 학습자는 일 대 일로 대화에 참여하며, ‘글쓰기’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화 목표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글쓰기 상담 대화는 상담원과 학습자가 참여하여 글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제 중심적 대화¹⁹⁾라고 할 수 있다.

16) III장의 [사례 9]에서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였다.

17) III장의 [사례 10]에서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였다.

18) 글쓰기 습관은 글쓰기 과정 전반에 내재되어 있겠으나, 이번 상담에 국한하여 본다면, 다른 단계에 비하여 내용 표현에서 학습자의 글쓰기 습관이 두드러졌다. 이는 글쓰기 상담이 일회성을 띠 때 그러한 것이며, 보다 연쇄적인 복수의 상담이 진행된다면 글쓰기의 다른 과정에서도 학습자가 지닌 글쓰기 습관이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19) 박용익(2001 : 193)은 대화의 유형을 과제 중심적 대화, 관계 중심적 대화, 행위 동반적 대화로 분류하였다.

상담원과 학습자의 대화는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글쓰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서로가 파악하고 있는 글쓰기 문제와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담원은 학습자보다 글쓰기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이기에 상담원과 학습자 사이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²⁰⁾

그러나 상담 대화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인 만큼 일방적인 대화로 흐르기보다는 역동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대화 과정에서 상담원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학습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 대화의 도입 단계와 마무리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소통성(rapport)의 형성은 글쓰기 상담 대화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담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은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에 반영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습자의 글쓰기 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쓰기 상담 대화에서는 과제 중심적 대화의 성격과 관계 중심적 대화의 성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상담원과 학습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권력 구조²¹⁾가 아닌 상호 역동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글쓰기 상담 대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은 학습자의 의도와 이해한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의 대화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원과 학습자 간에 일 대 일의 대화가 이루어

20) 이런 측면에서 박용익(2001 : 183~187)에서는 상담을 일방적인 상보적 대화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21) 가령 의료 면담 대화는 의사-환자 간의 권력 관계에 따라 병원이라는 제도적 상황에서 불균형적인 상호 행위가 일어난다. ‘의사의 질문-환자의 대답’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환자는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하고, 의사가 진단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만 한다는 과제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동시에 주제 이동의 주도권 역시 의사가 쥐고 있다(진제희, 2006).

진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학습자의 수준, 요구, 목표, 단계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상담 대화는 ‘도입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 →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 → 종료’의 거시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는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기능은 발화 행위와 문제 해결 과정의 인지적인 영역, 그리고 ‘글쓰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진술, 제안, 질문, 요청, 지시, 답변’ 등의 발화 행위와 ‘문제 제기, 문제 파악, 해결 방안, 이해 확인’ 등의 인지 과정, ‘글의 갈래, 글의 내용, 글의 주제, 독자’ 등의 글쓰기 영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발화 단위 안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의 문제 상황에 따라 <글의 주제 유도 질문>, <글의 갈래 질문>, <문제제기 진술>, <독자 파악 정보 질문> 등의 행동기능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처한 수사적 상황을 파악한 후에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등의 문제가 진단되면 그에 대한 처방이 모색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 상담 대화는 상담원과 학습자의 역할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진단과 처방은 주로 질문과 대답의 연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데, 이는 단순한 패턴으로 반복되다가 점차 심화된 형태로 이어진다. [사례 10]의 일부 내용을 예로 들면, ‘(10)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1 → (11)내용 답변1 → (12)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2 → (13)내용 답변2 → (14)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3 → (15)내용 답변3 → (16)내용 구체화 유도 질문4 → (17)내용 답변4’의 흐름처럼 상담원은 학습자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점차 심화된 내용을 질문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구상이 체계화되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여 명확하게 글을 조직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체계적

으로 배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에서 나타나는 상담원의 질문 행위는 예비 진단 과정에서 예측한 문제의 원인을 학습자에게 확인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전자는 학습자에게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폐쇄형 질문에 해당한다. 반면에 후자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추론하거나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방형 질문에 해당한다.²²⁾

셋째, 상담원은 주로 질문 행위를 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이끌어 내지만 내용의 표현이나 글쓰기 습관에 대해 상담을 할 때는 제안, 지시, 요청 등의 직접적인 발화 행위를 한다. 이는 상담 결과가 명확한 반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종종 드러나는 발화 행위이다. 상담원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상담 후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상담원은 학습자의 부족한 글쓰기 경험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 현장에서 글쓰기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설명해야 한다. 상담 대화는 학습자의 실제 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부족한 이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습을 병행한다. 이런 활동은 상담 대화의 교육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이후에도 글쓰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에서 학습자의 발화는 주로 상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능동적인 학습자의 발화에서는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점검하거나 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의 질문은 상담원에게 글쓰기 지식과 관련한 내용을

22) 이준하(2008)에서는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의 반응 발화를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폐쇄형 질문은 의학적 판단을 위해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개방형 질문은 환자에게 능동적인 발화 생산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요청하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선택한 문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상담원이 제안한 해결 방안이나 설명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를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글쓰기 상담 대화는 정형화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관계에서 벗어나 상담원과 학습자 사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담원은 학습자의 발화를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상담 대화에서 다룬 내용들을 상담 후에 과제 수행에 반영하고, 전략적인 글쓰기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대학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된 상담 대화의 구조와 그 특징을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면대면 상담 대화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으로써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중시되는 피드백의 구체적 양상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거시 구조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과제의 목적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도입→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종료’의 기본 틀은 대체로 유지된다. ‘도입과 종료’는 상담이 시작되어 끝날 때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진단과 처방’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다.

이에 진방과 처방 단계에 집중하여 글쓰기 상담 대화의 미시 구조를 살펴보았다. 진단과 처방 단계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크게 ① 수사적 상황 파악, ② 내용 생성, ③ 내용 조직, ④ 표현의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글쓰기의 활동은 학습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하위의 개별 화제로 구분된다.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는 과제 중심적 대화의 성격과 관계 중심적 대화의 성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적 대화이다. 또한 상담원과 학습자 사이에 일 대 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원은 학습자의 수준, 요구, 목표, 단계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열린 구조의 대화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진단과 처방 과정은 상담원과 학습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진단과 처방은 주로 질문과 대답의 연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단순한 패턴으로 반복되다가 점차 심화된 형태로 이어진다. 둘째, 상담원의 질문은 예비 진단 과정에서 예측한 문제의 원인을 학습자에게 확인하는 폐쇄형 질문과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분된다. 셋째, 상담원은 주로 질문 행위를 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이끌어 내지만 내용의 표현이나 글쓰기 습관에 대해 상담을 할 때는 제안, 지시, 요청 등의 직접적인 발화 행위를 한다. 넷째, 상담원은 학습자가 부족한 글쓰기 경험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 현장에서 글쓰기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여 설명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발화는 주로 상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능동적인 학습자는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점검하거나 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행위를 시도한다.

이상의 논의는 대학 글쓰기 상담에서 학습자와 상담원 사이의 대화 양상을 살핌으로써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과정의 실재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글쓰기 지도 방법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인문 계열 1학년 학습자들의 글쓰기를 주로 다루었지만, 대학 글쓰기는 전공과 학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의 유형이 다르기에 상담 대화에서 집중하는 초점이 달라질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비교될 지점이다.*

* 본 논문은 2009. 6. 29. 투고되었으며, 2009. 7. 5. 심사가 시작되어 2009.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박성희·임용우(2000), 「상담대화」, 『논문집』 2,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pp.167~220.
- 박용익(2001), 『대화분석론』, 역락.
- 박정진(2006), 「국어 수업의 질문활동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신순자(2007), 「상담화법의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6, 한국콘텐츠학회, pp.144~153.
- 오윤호(2003), 「대학 글쓰기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5, 한민족 문화학회, pp.139~164.
- 유동엽(1997), 「대화 참여자의 대화전략에 관한 연구—상호작용을 위한 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이명실(2008),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평가’ 방법 재고」, 『작문연구』 6, 한국작문학회, pp.67~97.
- 이주행(1983), 『화법의 원리와 실제』, 경문사.
- 이준희(2008), 「환자의 말화에 대한 의사의 반응 말화—초진 대화의 문진 단계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pp.97~115.
- 이창덕 외(2001), 『삶과 화법』, 박이정.
- 전영우(1990), 『국어 화법론』, 집문당.
- 조희정(2007), 「중세 글쓰기의 수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pp.233~237.
- 조희정(2008), 「대학 내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구축 방안」, 『한성어문학』 27, 한성어문학회, pp.271~293.
- 조희정·나은미·이상혁(2008),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의 현황」, 『사고와 표현』 창간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pp.103~108.
- 주민재(2008), 「대학 글쓰기 수정 교육에 관한 수업 모형 연구」, 『작문연구』 제6집, 한국작문학회, pp.281~318.
- 진제희(2006), 「기능단계별로 나타난 의료면담의 제도 대화적 특징 연구」, 『사회언어학』 14-1, 사회언어학회, pp.137~163.

<초록>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구조와 특징

—인문 계열 전공 글쓰기 상담을 중심으로—

조희정 · 이현주

본 논문은 대학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된 상담 대화의 구조와 그 특징을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학 글쓰기 상담의 거시 구조는 대체로 ‘도입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탐색 → 학습자의 글쓰기 문제점 진단 ↔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처방 → 종료’의 틀을 유지한다. 진단과 처방 중심의 미시 구조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① 수사적 상황 파악, ② 내용 생성, ③ 내용 조직, ④ 내용 표현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진단과 처방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진단과 처방은 주로 질문과 대답의 연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패턴으로 반복되다가 상담원의 심화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둘째, 상담원의 질문은 예비 진단 과정에서 예측한 문제의 원인을 학습자에게 확인하는 폐쇄형 질문과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분된다. 셋째, 상담원은 질문 행위를 통해 학습자의 발화를 이끌어 내지만 내용 표현이나 글쓰기 습관 부분에서는 제안, 지시, 요청 등의 직접적인 발화 행위를 한다. 넷째, 상담원은 학습자가 부족한 글쓰기 경험과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글쓰기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여 설명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발화는 주로 답변으로 이루어지지만 능동적인 학습자에게서는 글쓰기 습관 점검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질문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핵심어】 대학 글쓰기, 피드백, 상담, 대화, 대화분석, 거시 구조, 미시 구조, 진단, 처방

<Abstrac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Counseling Conversation for an Academic Writing

Cho, Hee-jung · Lee, Hyu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counseling conversation for an academic writing.

A counseling conversation is face-to-face conversation. A counseling conversation for an academic writing has open and dynamic structures, because it is not only a conversation on the task, but also a conversation on the relation.

The macro-structure of a counseling conversation is constituted of 'introduction→inquiry into learner's writing ability→diagnosis on learner's problem in writing→prescription for improving learner's writing ability→the end'.

The micro-structure of a counseling conversation is showed at the stage of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an academic writing depends on the universal progress of writing as this.
① inquiry a rhetoric situation ② creating writing contents ③ organizing of writing contents ④ expression.

[Key words] academic writing, feedback, counseling, conversation, conversation analysis, macro-structure, micro-structure, diagnosis, prescription.